

2024.12.31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399.49 (0.00)	678.19 (0.00)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2.596 (-0.001)	1472.30 (+4.80)



## 정국 혼란에 참사까지... 회복·치유 절실한 대한민국

**2025 신년기획**  
**격동의 한국 생존 넘어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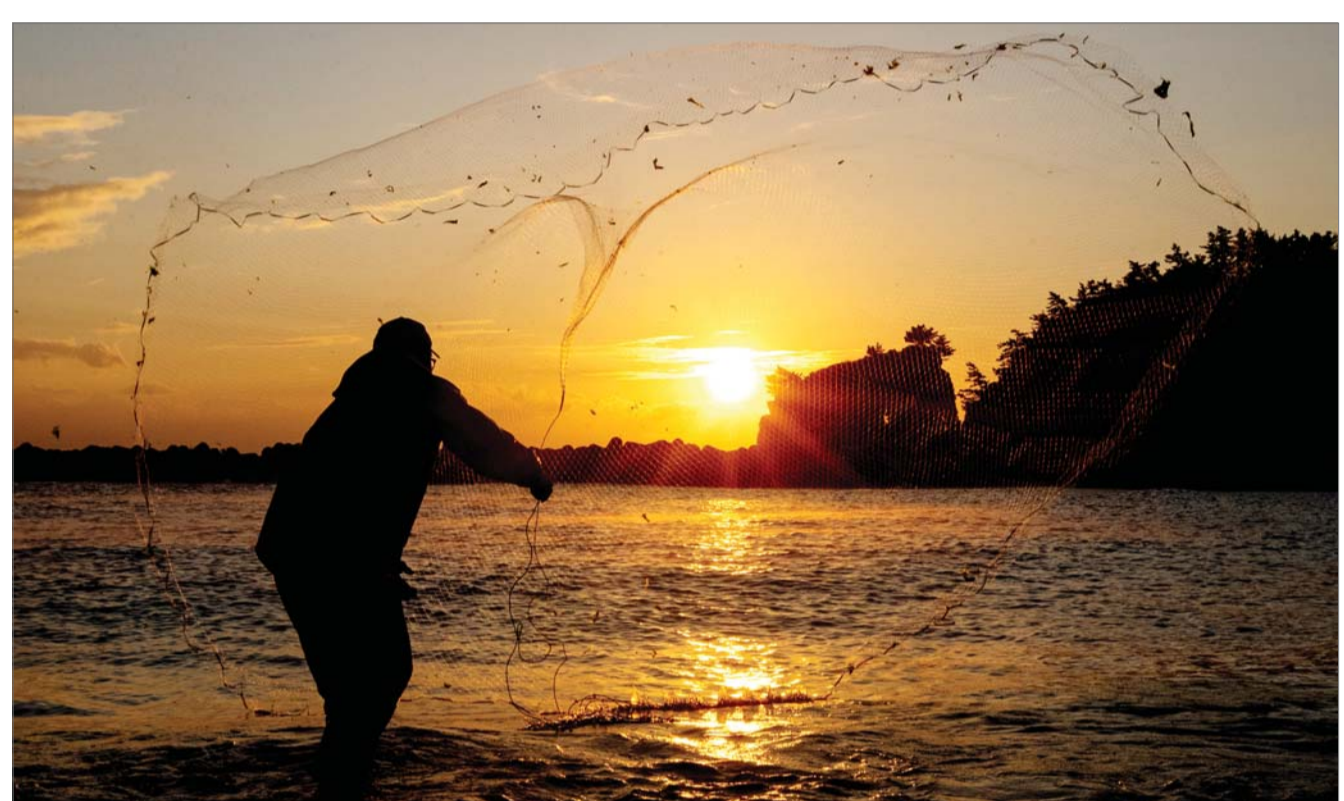
트럼프2기 이어 계엄·탄핵 여파 올해 성장률 전망 1%대 줄이어 현재 결론 주목, 조기 대선 가능성 환율 급등에 제2 외환위기 우려도

나라의 지난 한 달이 극도로 어지러웠다. 그 사이 어김없이 새해는 찾아왔다. 12·3 사태 이후 풀어 내야만 하는 실타레가 마구 엉켜 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정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불확실성이 에워싼 경제·외교 등을 정상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았다. 그래도 국민들은 천만다행이었다고 새삼 느낀다. 희대의 계엄조치가 성공했다면 섬뜩한 연말과 새해를 살아야 했다.

(신년호 기획기사 3~13면)  
올해는 8년 전과 판박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고 대선을 치르는 가정이다. 상반기 내에 새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다. 2017년 1월 미국 새 행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도 한국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였다. 그때도 이번에도 상대는 도널드 트럼프다. 만에 하나 탄핵소추가 불인용(기각)될 시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와 마주할 기회를 갖는다. 이미 우리 경제엔 지난해 11월 초 트럼프 후보의 당선 직후부터 불확실성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뒀고 주식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 그는 동맹국에도 관세를 더 매기겠다고 했다. 대미수출 비중이 상당한 우리 기업엔 경쟁에서 살아남을 묘수와 차선책 등이 절실하다. 이처럼 무역전쟁이 예고돼 있는데 외교적 해법 제시에 나설 지휘부가 공석이다. 2024년의 마지막 주말 여객기 참사까지 터졌다. 앞친 데 뒷친 격이고 실의

와 절망이 가중됐다. 국가적 혼란 속에서 이 역시 제대로 수습하고 유가족을 보듬어야 한다는 과제가 추가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당분간 민간 소비가 살아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도는 1%대 경제성장률 전망이 대체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힘을 받는다. 기재부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와 국회 간 긴밀한 소통·협약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달 24일 한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추경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의지를 좀 강력하게 표명해 주면 환율 등에 영향(원화까지 하락세 방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수결손 위험을 감안해 추경의 집행 시기 및 운용방향 등에 대한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제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론도 곳곳에서 나온다. 일정 부분 설득력도 얻고 있다. 반면,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는 지적이 더 우세한 것도 사실이다. 최근의 환율 급등 탓에 제2 외환위기론 등 우려의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나라 경제가 그만큼 위급하다는 얘기다. 지난달 3일 자정을 넘긴 시각 여·야는 힘을 모아 계엄령을 무력화했다. 양극단을 달리는 정치이긴 하지만 일단 나라는 살리고 봐야 했던 것. 권한대행 등의 향후 거취는 투명하지 않다. 적어도 현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회의 임무가 막중해 보인다. 밝아온 새해와 함께 나라는 중대기로 섰다. 현재 정치, 외교, 경제 나침반이 모조리 망가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주의 수가운데 ‘2017년 판박이’와 예기치 못한 길 등이 있다. 국민의 눈은 일단 현재와 수사당국에 쏠려 있다. 대다수는 바른 선택지가 뭔지 잘 안다. 전 세계인이 이미 지켜봤다.



**떠오르는 희망찬 새해** 2025년 을사년(乙巳年)을 맞아 강원 강릉시 영진해변에서 어민이 어망을 던지고 있다. 떠오르는 해를 향해 어망을 던지는 어민의 마음처럼 어려움을 이겨낸 국민들의 희망찬 새해를 기원해 본다. /손진영 기자 son@

## 소비촉진·추경 시급... 자본시장 안정화 과제

**4분기GDP 증가율 매우 저조 예상 외환위기 우려 속 추경 논의 본격화**

올해 정부는 민간소비 회복을 위한 방안을 짜내야 한다는 시급한 과제를 안았다. 지난해 지속된 소비 부진은 둔화한 경제성장률을 더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책 지휘부의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자본시장에 대한 정상화 추진도 당면 과제다. 지난해 소비는 끝내 살아나지 않았

다. 12·3 사태는 연말 특수마저 자취를 감추게 만들었다. 4분기 민간소비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매우 저조할 것이란 예측이 터져 나온다. GDP는 지난해 1분기 1.3%(직전분기 대비) 늘어나며 깜짝 성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2분기(-0.2%)에 역성장했고 3분기(+0.1%) 들어서는 간신히 뒷걸음을 면했다. 수출이 2024년도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음에도 민간소비 등의 내수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건설업 위축 역시 내수 진작에 큰 걸림돌이 됐다. 본예산의 집행도 개시하기 전부터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는 지난해 말 국회 및 정부 참여 국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협의체를 통한 추경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의했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당 내부 논의를 우선 거치겠다고 화답했다. (3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 미래로 함께 가는 2025년

모두가 꿈을 이루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한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삼성엔 다양한 CSR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와 동행하며 함께 희망을 키워갑니다

항공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